

지정대본(B)

오디션 대본

남자독백(1)

(반올림2)중에서, 여명

너 지금 뭐하는 거냐? 니가 뭘 반성해, 왜 반성해!

너 뭐가 그렇게 맨날 나한테 미안하고 고맙냐?

아직도 몰라? 니가 이러니까 애들이 우릴 욕하는 거 아냐!

다른거 다 관두구! 나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,

너 내 옆에 있으면 떨어지는 떡고물 때문에 나 좋아하는 척 하는거냐!

정말 애들 말대루?

정말 이야, 궁금해서 그래,

대답해봐,

남자독백(2)

(태왕사신기)중에서, 담덕

(도열한 군사들 사이로 걸으며) 세 가지만 기억해라.

첫째, 우리는 적들과 창칼로 싸우지 않는다.

이번 전투에 우리의 무기는 공포다.

우리는 하늘아래 가장 공포스런 군대가 될 것이고

세상은 우리를 공포의 주신 개마대라 부르게 될 것이야.

둘째, 이번전투의 승리는 속도에 달려있다.

일곱날 안에 적의 성 세채를 함락 시키고 20일안에 적의 성 열채를 빼앗는다.

그리고 마지막 셋째... 죽지마라, 목숨을 버리고 싸우는 놈은 필요없다.

어떻게든 살아서 끝까지 내 옆에 있어,

그것이..나..너희들 왕의 명령이다.

여자독백(1)

(성장느낌 18세)중에서, 기정

어렸을 때 화상 입은 거야. 우리집은 그때 목욕을 하려면 뜨거운 물을 댕혀서 부엌에서 간신히 하고 그래야 했거든.

넌 그런 집에 안 살아봐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...(힘들게 말한다. 눈물을 참으며) 그날도 엄마가 목욕물을 댕혀놓고 날 불렀어,...겨울이었는데...부엌 타일이 굉장히 미끄럽드라구...

들어서면서 난 넘어졌구...펄펄 끓는 물이 내 몸으로...

우리 엄마가 그때, 당황해서 내 옷을 막 벗겨내지만 안았어도...그랬어도...(감정이 격해지고)

(울음 참으며) 시계바늘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...

그날 난 부엌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텐데...

그날 그 시간을 쫓 빼놓을 수만 있다면...

성형수술은 벌써 몇 번이나 했어.

없는 돈에 수억씩 잡아먹구...(눈물을 참으려고 이를 악문다)

(태왕사신기)중에서, 수지니

좀 ..봐주시겠습니까?

다 아물었죠?

어릴 때부터 그랬데요. 아무리 베이고, 찢리고, 다치고 그래도,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아물어요. 독을 당하면 좀 문제긴 한데, 그거야 뭐 화천 놈들이나 쓰는 거고.....

저는요. 임금이란, 저처럼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.

임금이 되면,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할 거예요.

전쟁이라도 나봐요. 임금님이 '진격'! 이러면 그 수많은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될 텐데, 자기 때문에..

그때마다, 징징거리고 주저앉아있으면, 거 어디 임금 하겠어요?

그러니까, 임금님이란 말이죠. 음... 그 어딘 아픔이든, 하루 만에 아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

그리고 다시 일어나서, 나가야 할 길을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

'그래도 나를 따라다오 난 임금이야' 이러면서...

아..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파...잘게요..